

코로나 확진 중증 장애인 제때 치료 받는다

광주시, 민·관 TF팀 구성... 병상 우선 지원·24시간 상담창구·관계기관 핫라인 구축 등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중증장애 여성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광주일보 3월 24일자 6면)과 관련, 광주시가 중증장애인 전용 병상 확보 등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 장애인단체가 코로나가 발병한 지난 2020년부터 중증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40대 중증장애 여성 사망 소식 이후, 광주시는 지난 23일 급하게 장애인 감염병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세웠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장애인 복지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총 11명이 모여 코로나19 확진 중증 장애인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총 6가지로 구성된 대응체계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중증장애인 전용 병상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이 코로나에 걸려 증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병상을 배정한다. 빛고를 전남대병원과 제2생활치료센터에 각 2병상씩 총 4병상을 중증장애인 우선 병상으로 운영한다. 환자의 질환 상태에 따른 치료 가능 병상을 우선 배정한다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의료전문가, 장애인단체 전문가, 유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TF팀은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 및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내에 코로나 관련 장애인 전담 24시간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감염시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비대면 처방 병·의원 안내, 건강상태 체크 등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진 중증장애인 관계기관 핫라인을 구축해 관리한다. 시·자치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PCR 양성 확인 문자 발송 시 ‘담당공무원과 통화 시 장애 상태와 코로나증상을 상세히 알려달라’는 장애여부 확인 알람 문구도 포함해 확진자들의 장

에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방침이다.

코로나 의심이나 확진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던 이동 지원을 4시간 늘려 밤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이용권수 증가시 차량도 증차할 예정이다.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자가진단 키트 구입 등 방역지원비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그동안 코로나 19 역학조사와 장애인 관리가 이분화돼 있다 보니 장애인 확진자가 파악되지 않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응책이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점점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폭력 가해 학생 사이버공간 ‘접촉금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가해 학생의 전화 기록이 종료 후 2년간 보존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화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한다.

문제가 된 학생 운동 선수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한다.

/연합뉴스



다시 시작해, 봄 광주대학교 학생 자치기구 연합 출범식 ‘다시 시작해, 봄’ 행사가 24일 오전 교내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년만에 개최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젠 ‘전남대 홍매’로 불러주세요

개교 70주년·식재 70주년 기념 명명식

전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과 전남대 홍매 식재 70주년을 기념해 24일 ‘전남대 홍매’ 명명식을 가졌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과 한은미 교수회장, 학생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명명식은 명판 제막·홍매 나무 기구기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대는 지난 2020년 기존 ‘대명매(大明梅)’란 이름을 ‘전남대 홍매(紅梅)’로 바로 잡았으나 두 명칭이 여전히 혼용됨에 따라, 홍매 식재(기증) 70주년을 맞아 ‘전남대 홍매’ 명명식을 통해 이를 공식명칭으로 널리 알리기로 했다.

‘전남대 홍매’는 1621년 월봉 고부천 선생이 명나라에 특사로 갔을 때, 희종 황제로부터 한 그루를 증정받아 고향인 담양군에 심어 길렀고, 그의 11대 손자인 고재천 교수가 1918년 취목으로 분주해 키우던 것을 농과대학장에 재적하면서 1972년 대학에 기증해 1976년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대명매’는 사대주의 색채가 강하고, 1621년 당시의 대명매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전남대 농업실습교육원은 전남대 홍매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유전형질을 그대로 이어받는 무성번식을 통해 개체 수를 대량 증식하고, 홍매 꽃차도 만들어 선보이는 등 전남대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간단한 후각 자극으로 5분 내 치매 진단

지스트·조선대 연구팀 개발... 전전두엽 근적외선 신호 기반

광주지역 연구팀이 복잡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과정을 간단한 후각 자극만으로 5분 이내에 구분하는 새로운 치매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지스트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와 조선대학교 이진호 교수 연구팀은 후각 자극 시 전전두엽에서 측정된 근적외선 신호를 기반으로 정상·인지기능 장애·알츠하이머 치매를 구분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알츠하이머 진단까지 걸리는 장시간 걸리는 인지 기능 검사, 혹은 뇌 MRI 또는 아밀로이드 PET-

CT 결과를 종합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치매 단계를 5분 이내에 간단한 후각 자극을 통해 구분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연구팀에서 제시한 ‘FNIRS’를 이용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기술은 뇌 MRI나 아밀로이드 PET-CT보다 경도인지장애를 빠르면서도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효과적인 치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조기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발견함으로써 치매 관리 및 임상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연구들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인지 기능 저하 증상 발현 이전에 후각 기능이 정상인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후각 기능의 저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이번 연구는 뇌 전전두엽에서 후각 기능의 변화를 근적외선 분광 기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알츠하이머 치매 단계를 진단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이진호·김재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진단 과정이 매우 간편할 뿐 아니라 소요 시간도 5분 내외로 짧으며, 비용이 훨씬 낮으면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줘 임상 적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지방자치경영대상’ 일자리창출대상

광주시 유일 3년 연속 수상

광주시 북구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27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일자리창출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북구가 3년 연속 수상을 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역 발전과 행정서비스 혁신 등에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선정한다. 북구는 지난해 자활 분야 대통령상, 지방자치

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지자체 선정, 사회적경제 진화도시 선정 등 일자리창출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다.

또 북구는 민선 7기 들어 문을 연 북구청년센터 ‘청춘이랑’을 운영하며 2022년 청년 주도형 일자리사업과 청년 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청년이 머무는 도시만들기에 주력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